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영생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참관기

한국에서 열린 제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다. 앞으로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그 의미를 숙고해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0개 나라 이상을 대표하는 5,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잠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는 어떤 설명도 내가 느낀 경험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에 대한 몇 가지 성찰과 함께 서울선언문 그리고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사역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로잔운동은 세계 복음주의 선교 전략에서 주요 전환점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1974년 첫 번째 로잔대회는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향후 복음주의 교회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 언약을 초안했다. 1989년 마닐라 대회는 10/40 창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교차문화 사역과 상황에 맞춘 교회 개척을 강조했다. 2010년 케이프타운대회는 전도(복음 선포)와 사회적 행동(복음 실천)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 관점은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노력의 기초가 되었다.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사람들을 파견하는 진정한 글로벌 노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 모인 선교학자들이 예견했던 이 개념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북미와 유럽이 선교를 주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글로벌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아 모든 대륙에서 선교사역을 지원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케냐에서 온 형제는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브라질 출신 선교사이자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역하는 르네 브루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증거로 한국 교회를 꼽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북미를 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선교에 접근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선교사는 서구에

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실은 나이로비나 뉴욕, 상파울루나 서울 등 세계 곳곳의 교회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선교는 이제 서구의 수출품이 아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는 전 교회의 공동 소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라 브루엘이 대의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들어보자.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케냐에서 온 형제는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브라질 출신 선교사이자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역하는 르네 브루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증거로 한국 교회를 꼽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북미를 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선교에 접근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선교사는 서구에

의 부흥을 목격한 적 없다는 팀 켈러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모든 부흥은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는 언제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그의 말을 기억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맥락을 넘나드는 대화

서울-인천대회는 전 세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풍부하고 서로를 깨우치는 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테이블 그룹 리더로서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그룹과 만나는 특권을 누렸다. 우리 테이블에는 홍콩, 케냐, 한국, 인도에서 온 참가자들이 있었다. 인도에서 온 형제는 개종한 시크로도, "구도의 길을 걷는 나를 더 위대한 구도자가 찾았습니까"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언제 찾았느냐"는 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었어요!"였다.

(3면으로 계속)



성경 해석학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독서를 배우는 것은 아이의 교육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학습으로 가는 주요 관문입니다. 독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거쳐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거나 참여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예술이자 과학이며, 해석학이라고 정합니다.

왜 해석학인가?

해석학(Hermeneutics)는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원리와 관행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학문입니다. 해석학은 저처럼 성경 문해력을 중시하고 성경 해석의 갈등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처럼 문자적 해석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성경 연구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은 로켓 과학이 아니라 신학적 학문입니다. 성경해석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신학교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창조된 낯선 신세계에 살 수 있는 독자를 양성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장우호 목사



신양길림 차용호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시론

원색복음(原色福音)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자



이동진 목사 (성화정로교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다섯 가지 감각을 오감(五感)이라고 한다. 오감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즉, 나에게 느껴진 감각들을 통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공동체는 크든 작든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이 있고, 조약체마다 내규가 있으며, 또한 사회생활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규례들을 조문(條文)으로 만들어 기준을 삼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그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규율이 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 질서를 갖고 살아가게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들쭉날쭉이 되어 버린 사회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정해진 규례 외에 슬금 들어서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계나 경제계 심지어 문화와 체육계 등에도 이처럼 기준이 되지 못하는 기준을 두고 세(勢)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비일비재하다. 중세 시대 역사 속에서도 왕과 교황의 권력다툼으로 인한 칸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플러스 원'의 감각이 하나 더 있다. 오감(五感) 외에 영감(靈感)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받았다. 복싱이나 축구 등 운동경기에서 가끔 해설자들이 사용하는 '동물적 감각'이라는 말은 사람의 한계 밖에서 움직이는 그 어떤 힘이나 재능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적 감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로마 1:19)'고 바울이 기록한 말씀대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답게 창조해 주셨다.

그러나 상품에서 '플러스 원'은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지만 사실 인간에게 주신 이것은 영(靈, spirit)이라는 말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실은 '오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오감'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priority(우선순위)원리이다.

지난 주, Idaho주를 통과하면서 감자밭물골에 들렀다. 미국 감자 수급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州)답게 미국 내 감자재배의 시초와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감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뜬금없이 한반도에 감자가 처음 들어온 이야기가 생각났다. 거의 200년 전인 1832년, 당시 조선은 먹거리가 부족했다. 겨울나기는 서민들에게 두렵고 힘든 삶이었던 역사였다. 그 조선에 감자 씨가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굶는 배가 채워질 수 있었고, 매년 보릿고개를 넘어야했던 백성들에게 마령서(馬鈴薯)라 불리던 감자는 생명이 되었다. 더 특별한 사실은 귀츨라프 선교사는 백성들의 양식이 되어 준 감자 씨를 비롯해 의약품과 함께 한문복음서를 갖고 들어와 섰으며, 조정의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이 감자 씨를 들여온 사람은 다른 아닌 의사이며 목사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독일의 귀츨라프(Karl Gutzlaff) 선교사이다. 그는 육신의 먹과 치료할 약 그리고 거기에 더해 쪽 복음서와 주기도문(한글 번역)을 한반도에 전달했던 것이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들고 충청도 홍주 앞 불모도(不毛島)를 통해 고대도(古代島)에 임시로 머물고 있던 귀츨라프는 23살의 나이로 동남아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부인을 천국에 보냈음에도 '플러스 원'으로 받은 선교의 소명을 priority No.1 으로 정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인들에게 영과 육의 생명을 전했던 것이다.

빨강 노랑 단풍으로 물드는 이 계절에 원색복음(原色福音)을 다시 확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djee7777@gmail.com

종말이 가까웠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본향이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까? 히브리서 1:2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이후에 이어지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즉, 이전 년이 넘게 말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말세, 마지막 시대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 요한이 "마지막 시간(때)이다"(요일 2:18)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간은 지금 2천년 동안 흐르고 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도래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미래 부활의 "첫 열매"이다(고전 15:20).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의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약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강조했고(계 22:20), 말씀은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계 1:3)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재림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였을 때에는 자신의 재림 날짜를 모르셨다(막 13:32). 역사상 재림 날짜를 특정한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나는 다음을 제안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역사를 정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세대에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 22:20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정확한 종말 날짜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 그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역사를 통틀어, "모든 징조가 우리 세대에 종말이 올 것임을 가리킨다"고 말한 모든 세대는 다 각각의 위치에서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첫 번째 세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시대와 계절을 분별해 왔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고 올바르게 생각했다.

아무도 모른다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매우 흥미롭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시간, 해, 심지어 세기조차 계산할 수 없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재림 날짜를 계산하려고 시도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1988년에 나온 책에 쓰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는 데에는 88가지 이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림 날짜를 특정하려는 유혹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 때문이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셨다(마 24장; 막 13장).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이 특정하지 않은 날짜까지 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그날이나 그 시간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

2:3)이라고 밝힌 사람이다.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기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 하나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신자들은 자기 시대의 적그리스도 중 하나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들의 생각은 옳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종말 날짜까지 특정했을 때 그들은 오류를 범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세대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징조가 있는가? 진짜이다.

그렇다.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복음이 지구 끝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이가 개종하고 있다. 충실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중을 굳건히 세우고 있다. 복음은 결코 절망이나 패배주의에 대한 부름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신다(계 1:5).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마 16:18). 고통 받는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진다. "두려워하지 말라"(계 1:17).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다

(1면에서 계속)

그런 만남은 나로 하여금 동일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풍성함에 더 감사하도록 만들었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대규모 모임에서 예상하듯, 많은 공감을 얻은 프레젠테이션도 있었지만 당혹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있었다. 세대에 다가가는 요청, 제자도에 대한 더 강력한 집중, 리더십의 신실성, 복음과 그 의미의 연결에 대한 도전 등 당연히 예상된 주제들이 거론되었다. 정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몇몇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적어도 서구적 맥락에서는) 기독교가 “죄파”가 아닌 “우파”로 점점 더 치중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지 원인 파악을 넘어서서 보다 더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발표자의 주장대로 기독교가 정말 인위적인 범주(정치적 연합이 정치 이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만 작용하는 원칙)를 부수는 진리가 분명하다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잔혹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적 낙태라는 제약을 중대한 불의로 보지 않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발표자의 실수이다.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 명의 신자들이 함께 참여한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협업 세션이었다. 이 문제가 전도와 제자양성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격차(gap)”를 어떻게 드러내는데 관한 것이었다. 우리 테이블에는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가나, 말라위, 그리스에서 온 참가자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날 흥미로운 토론이 열렸다. “성별과 성적 지향”이라는 주제를 보는 순간 대부분은 보나마나 모든 토의가 LGBT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주를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소수가 이 세션을 선택한 건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탐구하고 싶어 했다. 생각보다 다뤄야 할 주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다시 세부 소그룹으로의 재편성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원래 계획대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화를 단지 문화적 갈등 지점 너머로 밀어붙여, 남성과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독교의 신체 신학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을 촉구했다. 이러한 다양한 대화는 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맥락에서 그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보다 심오하고 성경에 근거한 이론적 토대가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선언, 그리고 몸의 신학

복음과 성경 해석에 대한 지침 제시와 관련한 진전을 포함하여, 서울선언이 상당한 토론거리를 불러일으킨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류학과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강조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젠더와 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신체에 대한 강력한 신학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했지만, 나는 여기에 주

의를 기울인 초안 작성자들이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필수적이다.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춘 건 서울선언이 단지 서구의 문화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이러한 문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선언의 발표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실패에 대한 단락이 수정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실패가 “무지”(아마도 아프리카 교회에서 반발을 받았을 것이다)나 단순한 “차별”(내가 보기에 이 단어는 제자도 중심의 관점에서 법적 의미로의 전환까지 인식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비판받았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개념도 제거되었다. 편집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역사적 헌신을 “주요 관심사”(Manila 1989)로 분명하게 천명했던 로잔 정신을 강조하는 문장을 하나 넣자고 권고했다. 특히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가장 두드러지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의 존재와 실천은 환영받는 반면 복음 선포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서울선언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Theology Working Group의 리더인 이보르 푸발란과 비터 나가가 수많은 관점과 씨름하는 데 공감한다. 여러 결의안 또는 특정 문서 작성을 책임지는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는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그리고 비판 속에서도 냉정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데 따라오는 골치 아픈 일을 잘 안다. 서울선언 발표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선언에 감사하며 앞으로 교회에 필수적인 자료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서울선언은 인류학을 창조, 타락, 구원, 회복에 대한 성경 서사에 근거를 두며, 기독교의 비전이 반동적이지 않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설계에 대한 긍정적 선포임을 상기시킨다.

복음주의가 힘을 합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로잔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가 맞은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는 전도와 사회적 행동 모두를 강조하며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대 선교 운동의 역사는 사회적 행동을 우선시하면서 전도와 개종을 다소 평등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도와 제자도라는 복소수를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복음 다 잃게 될 것이다.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이엄은 로잔의 초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로잔을 살펴보면, 논쟁의 승리가 스토트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로잔은 교회가 세상 모든 일에 다 발을 담그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던 그레이엄의 우려로부터도 얼마든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체론적 선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스토트 지지자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레이엄이 느꼈던 부담에 공감했다. 로잔은 앞으로 세계 선교, 제자 양성,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이 수많은 경쟁 이슈가 충돌하는 우선순위의 혼란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로잔이 궤도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신다는 사도적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데에 영원한 위험이 내포되었다는 개념을 긴급한 전도가 필요한 핵심 동기로서 반복하는 것이다. 복음전파의 열정을 영원한 심판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케이프타운서약이 틀린 건 아니지만, 로잔대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심판이라는 측면이 복음 선포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로잔대회보다 훨씬 더 자주 심판의 경고를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비전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제4회 로잔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인 영광스러운 혼란이었다. 토론과 논쟁은 수년에 걸쳐 로잔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이다. 갈등 없는 협력은 있을 수 없다. 로잔의 역사를 둘러싼 더 거대해 보이는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어떻게 갈등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표면 아래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려워 아예 논란을 피하려는 자세를 지양하는 것이다. 세계 교회는 다면적인 다문화 현상이다. 나는 (주로 Isaiah 61:1이라는 유명한 한국 찬양 팀과 Gettys가 주도한) 예배 중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신자들과 나란히 서서 손을 높이 들어 삼일절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나는 앞으로 과연 사도 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구절을 로잔대회에서처럼 진짜 의미를 실감하며 암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전통 의상 착용의 날에 복도를 걸으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날 내가 아직 각 권도 없는 고향을 향한 향수병을 느꼈다. 모든 부족과 나라가 왕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들의 문화를 바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에티오피아, 케냐, 인도,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 만남이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작업이 그들의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내 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 단지 북미의 지평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제4차 로잔대회는 지금 세상이 아무리 미친 듯 보여도 교회는 관철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 있고, 번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한다. 의견 불일치와 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다. 여전히 영혼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미래의 과제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연합시키신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by Trevin Wax, TGC

목회단상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조 바이든’ 대통령은 4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민주당 후보로 재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사퇴를 했고, 여성 부통령이었던 ‘케티라 해리스’에게 후보직을 이양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주변 정세를 주의 깊게 살피는 분들이라면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제국에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바이든이 지난 뉴욕 유엔총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계정세에 대한 미국의 방향이나 해법들이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변에서 만류하는 참모들이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로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미국의 지배하는 자리, 세계 모든 정세를 한 손에 쥐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현지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의 나이는 180 살이라며 조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정말 나는 내 나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하며 건강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조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크’는 ‘여러분의 국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조국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명예욕과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준 누군가의 등 떠밀기에 밀려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듣는 분들의 입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나 상황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종종 고국에서 볼 수 없는 정치인들의 행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정치인들이 참창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물러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빛나는 것, 자랑스러운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눅 9:23)”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며 살아온 청년을 향해서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마 19:21)”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손에 사랑을 쥔 아이처럼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키고 누리며 살아왔던 것, 포기하기 싫은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쥐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포기하기 싫은 것 말입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이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으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Word4u@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 style="text-align: center;">감사안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 style="text-align: center;">나성순복음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lbfccusa@yahoo.com / www.lbfc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든든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사랑의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후 2:00 영양(잠스/KDC, 킹덤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 style="text-align: center;">대동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양곡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영안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월)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월)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381-2202, www.mpca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4 style="text-align: center;">복음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 style="text-align: center;">베델한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전 11:15(수요일),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949)854-4010 / bible@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소망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선교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h4 style="text-align: center;">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h4 style="text-align: center;">열매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 style="text-align: center;">엘피스사역원</h4> <p style="text-align: center;">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회무이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 장년노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 style="text-align: center;">은혜한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9:00, 11: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446-6202, www.groce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 style="text-align: center;">주님세운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림예배: 오후 7:20(금)</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4 style="text-align: center;">주님의영광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 style="text-align: center;">좋은마음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6:00(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4 style="text-align: center;">코너스톤 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이홍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 style="text-align: center;">토렌스조은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45(11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370-5500, www.torancec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 style="text-align: center;">평강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의 교회: 오후 1:00 TEE-동요음악(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새벽 2:0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함께 읽는다(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로렌초 디 메디치

이태리 역사를 살펴보면 가문들의 경쟁은 대단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고 패권을 손에 쥐려는 전투적 투쟁이었다. 로마에서는 콜론나와 오르시니 가문,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도 네피스와 휘유미 가문이 늘 대결하였기에 성 프랜시스도 평화를 즐기치게 되었다.

피렌체에서 은행업에 종사하던 피치(Pizza) 가문은 후발 주자인 메디치 가문이 실권을 쥐고 독단적으로 통치하자 불만이 컸다. 그런 상황에서 교황 식스투스

4세(Papa Sisto1471-1484)는 이몰라를 매입하기 위해 메디치 가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몰라가 피렌체와 베니의 교역로에 있었고 메디치 가문도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렌체 대주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메디치의 실권자 로렌초는 처남을 그 자리에 임명하도록 교황에게 간청을 드렸다. 그러나 거절당했는데 이유는 피사와 피렌체를 병합하려는 교황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대주교 살비아티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메디치의 실권자 로렌초가 거부하자 살비아티는 로마에서 3년 동안 세월만 허송하며 기다려야 했다. 이런 일로 앙심을 품게 된 교황은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고 자기 조카를 그곳의 군주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몄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 이스라엘을 침공한 하마스의 작전처럼 --

1478년 4월 26일 부활절, 피렌체의 대성당에 1만여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었다. 반대파들은 경건하게 미사가 진행되는 중에 암살을 도모하려고 했다. 음모자들은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미사를 진행하려 들어가는 성직자를 따라 들어가다가 메디치 형제를 죽으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무예에 능했던 로렌초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으나 응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생 줄리아노 메디치는 로마제국의 실력자 카이사르처럼 전신을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경건하게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 중에 일어난 살인에 시민들은 크게 흥분

했다. 그들은 즉시 공모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에워 쌓았고 거사 가담자 8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사살해 버렸다. 또한 음모의 주동자 살비아티 대주교를 붙잡아 높은 창문에 목을 매달았다. 역사적으로 대주교의 신분으로 음모의 주동자가 되는 것도 드문 일이고, 현직 추기경을 창문에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도 역사에 드문 일이다. 이처럼 피렌체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로렌초 메디치가 시민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체휼하였기 때문이다. 추기경을 목매어 단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케치로 남겼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로 용케 도망친 주동자를 3년 동안 집요하게 쫓아가 체포했고, 피렌체로 소환하여 공개처형을 시켰다. 거사가 실패하고 신임하는 추기경까지 잔인하게 처형당하자, 교황은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나폴리와 동맹을 맺었고 주변 도시들을 동원하여 피렌체를 침공하게 했다. 더 나아가서 피렌체에 성무 금지를 선포했고 -- 고로 피렌체 공화국의 생존

은 크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메디치가 의지도자 로렌초는 우방국인 밀라노나 볼로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국의 사정 때문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다. 피렌체는 이미 많은 전투에서 패했고, 국토는 황폐했고, 도적들이 횡행하고 역병까지 찾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로렌초는 죽기를 각오하고 혈혈단신, 배를 타고 적진 나폴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음흉한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드와 협상을 했다.

무려 석 달간을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과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동원하여 교황의 잘못된 통치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결국 강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

결과 교황은 나폴리의 배신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기분이 상했지만, 성무 금지를 철회하고 피렌체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일로 로렌초는 일약 피렌체의 영웅이 되었고 강력한 통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통해 은행업의 한계를 느낀 로렌초는 아들을 추기경으로 세우고자 결심했다. 한

편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84년 선종하자, 로렌초는 유순한 키보 추기경을 교황 후보로 후원하였다. 로렌초는 메디치 가문의 15살 된 막달 레나를 38살인 교황의 사생아 키보와 정략결혼을 주선했고 두둑한 지참금(현재가로 8백억)도 잊지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로렌초의 차남 요한이 약관 16세에 고대하던 빨간 모자를 머리에 착용하는 추기경으로 서임 될 수 있었다.

당시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고로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도 교황의 힘을 빌리면 손쉽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로렌초 메디치는 자신의 넉넉한 재물과 관계를 통해 교황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차남 요한을 그 자리로 한걸음 성급 다가서게 했다. 에덴동산에서 첫 사람이 쫓겨난 이후, 돈은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장용호 목사

(엘파소열린문장로교회 담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고 내 집은 가벼움 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지만, 유대인들은 슬퍼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판이 훨씬 더 어렵고 뜨거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있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뭔가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만 하면 나는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

도인이 되기는 돼야겠고, 그 증거로 세례 받았어.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내세우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멘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를 얻었을 때, 나도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

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와 함께 가자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버지의 집을 인도하신단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고 내 집이 가벼움 이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이라 하시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하신 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 계시는데 우리의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집이 어떤 집일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에 보니 그 천국의 성 대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닥은 각종 보석으로 짝 깔려있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어떤 사람이 큰집 가지고 자랑해 봤자 천국 집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집을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ybabo@gmail.com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20-30

내 멍에를 메자

오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미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밭을 갈게 합니다. 그때 그 소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는 말이나 소의 등에 얹어서 제어하는 장치지요. 멍에에 어미 소와 어린 소가 들어가게 하고 어미 소를 따라 밭을 가는 것을 어린 소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힘은 어미 소가 쓰면서 밭을 갈면 어린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두 소가 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과 멍에를 메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자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멍에를 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멍에를 멘 어린소가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멍에가 썩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어미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걸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로마서 6:3-4에 보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세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 않지요.

주님을 따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힘을 쓰고 누가 일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따라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만 하면 됩니다. 함께 밭을 쓰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음의 고백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가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멎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힘쓴 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임명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양자로 임적을 시켜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거룩한 책임, 거룩한 대선투표!”



이제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미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아니면 투표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언덕 위의 도시”로 (마 5:13-14) 세우셔서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이 미국이 역사적 위기와 선택의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만이 우리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신 30:15-20).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시고자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인들을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위기와 선택의 때를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뺨부스러기 같이 떨어지는 소수민족의 이득만을 따질 때는 한참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뛰어나며, 미국에서 이미 좋은 혜택과 많은 존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깨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투표할지, 하지 않을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 미국 50주의 기독교 투표 가이드라인이 올려져 있기에, 필요하신분들은 TVNEXT.org 로 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와 크리스천 신앙실천 관계와 이해:

1. 기억하기 -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우린 그 어떤 그룹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천국의 시민권자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거룩한 책임 의식”(마 5:13-16)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성향을 따라가지 않으며(롬 12:1)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의”(마 6:33)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급속기

도를 하며 함께 깨어나 투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2. 기도하기 - 말씀과 함께-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정보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경적 가치를 갖춘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기도로 미국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입니다.

3. 유권자 등록하기 -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 하셨으면 빨리하세요. 아주 쉽게 저희 홈페이지에 방법을 올렸습니다. TVNEXT.org

4. 투표하기! 왜 꼭 투표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꼭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미국의 “생사”와 다음 세대들의 “미래”와 “생사”가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he chose for his inheritance.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시 33:12-14)

미국은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만도 거의 15년째입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킹은 “악이 무성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을 상기시켜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아는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안일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서, 믿음과 기도를 행동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그들의 악함 (변태적 성교육,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말기 낙태 등등)을 자랑하며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투표의 기준!
1) 크리스천들은 어느 특정당 당 (Political party)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투표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나 개인적으로 아는 또는 같은 국가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하거나, 어떤 특정 후보자를 영웅시해서도 안됩니다.

2) 투표할 때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적 창조질서 기준이 된 원리 원칙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관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3)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수호하는 검증된 후보자를 뽑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검증과 확인은 필수입니다.

- 후보자의 화려한 말과 빈약속이 아닌, 그의 정책 전력(track of record on policy, platform)과 passed bills(통과시킨 법안들)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들에게 선거 재정을 후원하고 Endorse하는 배후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반기독교? 기독교)을 펼칠지 거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돈을 쫓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6. 어떤 성경적 가치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다음은 미국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가치들을 뿌리째 흔들고 바꾼 정책 이슈를 우선순위 합니다.

- 결혼정의 및 정체성(성) 회복: 동성결혼뿐 아니라 더 위험한 트랜스젠더이슈에 대한 정책

- 생명의 존엄성 회복: 태아 생명인지, 납세자 세금으로 낙태 지지인지에 대한 정책

- 기독교 신앙의 자유 및 자유민주주의 회복: 기독교인들만 역차별받고, 불이익당하고 있는 수많은 차별 법안들의 수정/폐지

- 국가 보안 강화: 미국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남부 국경(Southern Boarder)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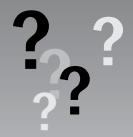
지금은 근본적 해결책을 도모할 때며 솔로몬과 다윗왕처럼 한 국가의 리더(대통령)를 비롯하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근본적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투표하는 선택의 결과들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와 부유, 자녀들의 건강하고 풍성한 미래입니다.

미국 50주 기독교 투표 가이드라인은 TVNEXT.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카운티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 십일조 제도는 옛 언약인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오늘의 신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십일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목사나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원합니다.

- LA에서 서장모가

십일조는 폐지되었다는데...

A: 좋은 질문입니다. 유튜브에는 목사가 말하는 것이지만 비성경적으로 치우친 내용들이 많아 성도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3:8-13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십일조는 1)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회개하고 십일조를 올바르게 드림으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적절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 말라기서에 메시지는 느헤미야가 사라진 후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을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자신만을 돌보며 포기해버린 시기에 쓰였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십일조를 도적질해 하나님으로 가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3) 십일조에는 축복과 저주가 따르는 약속입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으로 시작된 새 언약 하에서 십일조 제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십일조라는 말이 10번 등장합니다. 3번은 공관복음에서 7 번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니 1) 마 23:23, 눅 11:42 2) 눅 18:9-14 3) 히 7:2-10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1) 십일조 관습을 폄하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나타내 보인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십일조의 의무를 성취함에 있어서 십일조의 본질적 정신 즉 십일조를 드리는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십일조를 통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 예수님은 오경의 십일조 규례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의미에서 그 십일조 법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눅 1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므로 폐기되었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오늘의 신자들의 생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구약의 불연속성) 목사나 평신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십일조 폐지론을 말하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오경의 십일조를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십일조 법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경의 십일조 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새롭고 산 십일조가 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4) 또한 개인이나 교회가 십일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구약에서처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지와 발전 및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다수의 직무자를 세워 십일조를 관리하여야 하고 교회의 치리 기관을 통해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필요한 관련된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 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교인으로 등록된 교회나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교회에 우선적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보장돼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십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campus scene, degree programs (Ph.D. in Financial Economics, DBA, MFA/DFA),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새로 신설된 학위과정",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and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실종된 천고마비

유난히도 덥고 뜨거웠던 여름의 뒤끝까지도 무뎠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나 한낮엔 뜨거워져 심한 기온 차로 건강도 옷차림도 좁잡기가 쉽지 않다. 인간이 자초한 이상기온이 지구촌을 엄습한 결과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불순함이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워서 혀를 내미는 헐떡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측이 소름을 돋게 만드는 아이러니도 나타난다.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한 날씨를 자랑해 왔다. 봄 춘, 여름 하, 가을 추, 겨울 동으로 표현되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은 듣기만 해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

사계절 중 두 개가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봄과 가을이다. 봄은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이다. 봄이 없어진다면 인동초(忍冬草)라는 말도 사라질 것이다. 봄이 없다면 새싹은 언제 돋고 꽃은 언제 피며 벌과 나비는 어디로 갈까? 이는 단순히 생태계의 혼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현상은 인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가 버린 오물이 나의 입으로 들어가고 내가 태운 연기가 나의 폐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품을 심으면 품이

나고 팔을 심으면 팔이 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나의 언행도 이 하늘의 이치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한다. 예화다. 뿌리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까. 그때 열 가지에 앉아 있던 비둘기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 배가 고프신가요?" 뿌꾸기가 한숨을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노년이 너무 쓸쓸합니다." 비둘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아기를 품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뿌꾸기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화창한 날에 킁킁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알들을 모두 다른 새 집에 넣어 놓고 이산저산 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둘기가 말했다. "참 옥심이 많으십니다. 심은 것도 없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물으셨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눅 19:22) 인과는 분명하다. 심었으니 거둘 수 있고 버렸으니 내가 취해야 한다. 좋은 것은 나의 것이고

나쁜 것은 너의 것이라는 이기(利己)는 도리가 아니다. 이상기온의 엄습에 대해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다 자업자득임을 받아들인다. 우주에서 떨어진 오물이 지구촌을 오염시켰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탓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너무도 심각해진 후에야 내 탓임을 자각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을 말하고 배출물거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소한 이 선에서라도 지켜보자는 안간힘이다.



천고마비(天高馬肥)라는 말도 사라질지 모른다. 문자적으로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썩는 의미지만 이는 더 나아가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더 깊다. 그런데 이 좋은 계절마저 빼앗길 위기라고 한다. 봄과 가을이 없어지면 여름에 심어 여름에 거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철 음식도 사라질지 모른다. 따라서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뒷밭에 철을 따라 몇 가지 채소를 심어 먹었다. 이것이 울해서 떨어진 오물이 지구촌을 오염시켰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탓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너무도 심각해진 후에야 내 탓임을 자각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을 말하고 배출물거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소한 이 선에서라도 지켜보자는 안간힘이다. 제철 음식도 사라질지 모른다. 따라서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뒷밭에 철을 따라 몇 가지 채소를 심어 먹었다. 이것이 울해서 떨어진 오물이 지구촌을 오염시켰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탓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너무도 심각해진 후에야 내 탓임을 자각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을 말하고 배출물거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소한 이 선에서라도 지켜보자는 안간힘이다.

농사들이 타격을 받으면 이는 지구촌 전체의 기아로 번질 수 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는 것이 창조적 섭리이기에 춘하추동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춘하추동이 제 기능을 다 하면 천고마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이, 생태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손짓에서부터 가능할 수 있다. 휴지 한 장을 아껴 쓰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어렵지 않다. 문제는 습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여기저기 작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라도 잘 관리하면 더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만한 세상, 우리가 살고 후대에 이만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이 지금 숨을 쉬고 사는 현대인에게 있다. 지금의 너와 나에게 있다. 천고마비를 더 보고 싶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교회에 십자가 대신 시진핑 얼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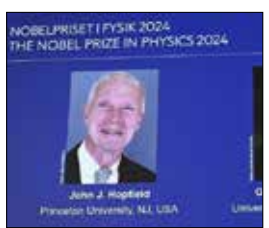
중국 당국이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탄압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예배 공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교회 상징물을 중국 지도자의 초상화와 공산당 구호 등으로 대체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다수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 등의 상징물을 제거하고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1893-1979) 전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 캠페인에 따른 조치다. 중국 당국이 종교적 표현들을 공산당의 이상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교회는 입구에 중국 공산당 구호를 게시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국가가 승인한 내용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사진을 십자가 구조물에 통합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비단 개신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진핑 사진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기독교인뿐 아니라 무슬림, 불교도 및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언론들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8일(현지시간) 공개되는 자서전 '멜라니아'에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지를 선택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이렇게 믿어왔다"는 주장을 실었다. 지난 3일 X(옛 트위터)에 올린 자서전 홍보 영상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자신이 수호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여성은 태어날 때 가진 필수적 권리인 개인의 자유를 다른 누구와 타협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 몸이고 내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낙태권은 개인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 관련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멜라니아 여사는 6일 포क्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과 의견이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의 낙태 관련 발언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보수주의 평론가인 엘리 스테퍼는 X에 "낙태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과 같다"며 아내의 발언을 막지 못한 트럼프 후보자 측 실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낙태 옹호 유권자층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AI 머신러닝 확립한 존 홉필드·제프리 힌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와 제프리 힌턴(76)이 선정됐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가능케 하는 기반 발견 및 발명'과 관련한 공로를 세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우리가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면서 "이들은 물리학적 도구를 이용해 오늘날 강력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된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신경세포)의 상호 연결(시냅스)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모방해 기계도 여러 계층으로 나뉜 노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홉필드는 자료상의 이미지와 다른 유형의 패턴을 저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상기억장치를 만들었다. 힌턴은 자료가 지닌 특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사진의 특정 요소를 식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과 방법론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여년간 머신러닝 기술의 폭발적 발전을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앨런 문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의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미 큰 혜택을 가져왔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힌턴은 2019년 조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메타의 AI 과학자 안 르쿤과 함께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000만원)가 수여된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앞서 7일에는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리브킨이 선정됐다.



스)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모방해 기계도 여러 계층으로 나뉜 노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홉필드는 자료상의 이미지와 다른 유형의 패턴을 저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상기억장치를 만들었다. 힌턴은 자료가 지닌 특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사진의 특정 요소를 식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과 방법론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여년간 머신러닝 기술의 폭발적 발전을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앨런 문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의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미 큰 혜택을 가져왔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힌턴은 2019년 조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메타의 AI 과학자 안 르쿤과 함께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000만원)가 수여된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앞서 7일에는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리브킨이 선정됐다.

'세계의 수도' 뉴욕시장, '비리' 애덤스 가고 '성추문' 쿠오모 오나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이 비리 혐의로 사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차기 뉴욕시장 후보로 성추문으로 주지사직을 자진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뜨고 있다. 6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쿠오모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차기 뉴욕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오모 전 지사는 뉴욕주지사 제임 중이던 2021년 여성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연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정계 복귀를 노려왔다. 쿠오모 지사는 퇴임 이후에도 노조나 흑인·유대인 단체 등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교회와 시민단체 활동 등도 지속해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차기 뉴욕시장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지사는 22%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수백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애덤스 뉴욕시장의 재선 도전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튀르키예로부터 호화 여행 접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뉴욕시장으로는 최초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사퇴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토폴이 4일 발표한 조사



결과, 뉴욕시민의 69%가 애덤스 시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쿠오모 지사는 지난해 전 보좌관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한 상태다. 선거에 출마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외에 추가로 성추문 의혹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뉴욕 민주당도 그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애덤스 시장이 사퇴할 경우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법무장관의 출마를 밀고 있는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내에서) 쿠오모가 뉴욕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정치적 복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명 증가 시대' 끝났나... 요즘 태어난 아이도 100세 어려워

유명한 인구통계학자인 제임스 보웰은 21세기에 태어난 대부분의 어린이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된 미국 일리노이시카고대 역학 및 생물통계학 교수인 스텐튼 울산스키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집한 기대수명 데이터를 분석해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이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말한다. 수명 예측은 사회·보건·경제 정책과 제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1%, 남성이 1.8%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울산스키 교수는 "인간의 기대수명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동안 보다 더 느려지고 있다"면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울산스키 교수는 1990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이미 인간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수명의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인간의 최대 기대수명이 약 87세(남성 약 84세, 여성 약 90세)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근접한 평균 연령이다. 울산스키 교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은 노화 자체로 사망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화는 세포, 조직, 기관, 시스템의 쇠퇴이며 현재로서는 멈출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처한 기대수명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화의 생물학적 과정을 늦추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멜라니아 "낙태 찬성"에 美 복음주의권 당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여사가 낙태 찬성 입장이 담긴 자서전 출간을 예



개혁신의 윤리학(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V. 창조의 규례(creation ordinance)와 십계명과의 관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질서를 세웠다. 그 질서 가운데는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윤리의 질서도 세웠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신학자들은 "창조 규례"(creation ordinance)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 신학의 영역에서는 "자연법"(natural law)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윤리의 삶의 원리를 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정하신 이 윤리의 규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슈들, 즉 결혼의 신성함에 관한 것 (동성 결혼, 이혼의 문제), 생명의 신성함(낙태, 인간복제, 유전 공학, 안락사), 다양성과 관용(종교 다원주의, 성전환, LGBTQ 문제 등) 그리고 인간 성취의 목표 (직업윤리, 건전한 오락 등)는 시대의 흐름이나 혹은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혼란과 파멸로 나아간다.

존 머레이는 그의 책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Conduct)에서 창조의 규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다. "자손의 출산, 땅에 충만함, 땅을 정복함,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노동, 안식일, 그리고 결혼."

창조의 규례를 요약하면, 1) 다스림과 노동 (Dominion and Labor) ; 2) 결혼과 번성 (Marriage and Multiplication); 그리고 3) 안식일 (Sabbath)로 요약된다.

이 창조의 규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일반계시, 혹은 자연법으로서 하나님 뜻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창조의 규례와 십계명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A. 노동과 다스림 (Labor and Dominion)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창 1:26-28)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의 모든 자원을 연구하고 활용해야 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 2:15).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부르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든 부르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 2:19).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뉘고 영귀를 낼 것이니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7-19).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후 문화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은 농사일에 뛰어났다. "아벨은 양떼를 치는 자요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창 4:2).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 에녹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창 4:17). 가인의 후손들은 농부, 음악가, 야금술을 발전시켰다(창 4:20-22).

대홍수 이전에 노아는 효과적인 크기의 방주를 지을 만큼 재주가 있었고 (창 6:14-16, 22), 홍수 후에 노아는 농업과 포도주 제조에 종사했다(창 9:20).

창 9:20).

그리고 니므롯은 왕이 되어 "여호와 앞에서 큰 사냥꾼"이 되어 여러 성읍들을 세웠다 (창 10:8-12).

노아의 후손들은 죄악을 행하면서 시날 땅에 가서 성과 바벨탑을 쌓았다 (창 11:2-5). 그리고 그들은 진흙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 정도로 문명을 발전시켰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는 적어도 두 개의 큰 문명, 바벨론(창 11:28)과 애굽(창 12:10-20)이 존



재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여러 도시들이 존재했다 (창 12장 이하). 왕들과 전쟁들이 있었고 (창 14),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생황 및 전철 도구들, 우상 제작 기술 등), 상업이 발달했다 (창 23장; 41:55-57). 인간의 타락 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창조 규례는 발달했다.

노동과 다스림의 중요성은 시내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한 도둑질과 탐심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도둑질은 죄악이다.

노동의 규례는 십계명의 넷째, 여덟째, 열째 계명과 관련성이 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제4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1).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로 번역된 문구가 히브리어 미완료형 (נָפְתִי imperfect; you shall labor)이다. 이 미완료형의 구문론적인 용법은 지시나 명령 (imperative)의 용법이다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509-510). 따라서 안식일 계명은 노동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20장 10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인간은 안식을 기대하며 여섯 동안 수고하고 노동해야 한다. 노동과 안식일의 이러한 관계는 태초부터 존재했다. 로버트슨은 "창조 규례의 안식일 규정은 노동의 의미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80).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있다. 성경은 게으름과 도둑질을 연관짓고 있다. "

게으른 자는 궁핍하게 되며" (잠 6:6-11), 가난은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 (잠 30:9).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의 10번째 계명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노동의 계명을 어기고, 게으르며, 일하지 않으면 탐내고, 도둑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창조의 규례는 십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십계명은 노동에 관한 창조 규례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일하고 땅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한다. 토마스 왓슨 (Thomas Watson)이 지적했듯이, "신앙은 게으름에 대한 어떤 것도 지지하지 하지 아니한다"(Thomas Watson, The Ten Commandments, The Banner of Truth Trust, 97).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례인 인간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동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의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여 주셨다.

B. 결혼과 번성함 (Marriage and Multiplication)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결혼했다(창 2:18-23).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은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창 1:28).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저주를 선언하셨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

아내는 남편에게 육량적으로 종속되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게 됨으로 결혼에 관한 창조의 규례는 왜곡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번성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창 3:16)라고 말씀하셨다.

가인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처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창 4:16-24).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실 때 네 쌍의 부부를 구원하셨다(창 6-9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 축복의 중요한 요소였다(창세기 12-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2:2; 15:4-5; 17:2-4). 그리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창 12:3)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다(창 18:19).

이삭과 야곱이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도 중요했다(창 24장; 28:1-2).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새로운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규례를 실현하는 방편이다.

로버트슨은 "결혼의 규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에 있다. 결혼의 규례는 구속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79).

결혼과 번성에 관한 창조의 규례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5, 7, 10 계명과 관련이 있다.

제 5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제 5 계명은 부모, 즉 결혼한 부부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명확한 역할과 명예를 인정한다.

그리고 제 5 계명은 권위의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

KHL0206@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교회</h2>				<h4>뉴욕목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Tel: (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esthouston,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갠셋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Tel: (516)520-2004 2406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현 Tel: (718)461-2810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Tel: (516)387-9940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Tel: (718)706-0100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요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Tel: (718)762-2525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Tel: (718)229-2858 45-62 21st, East Meadow, NY 11554</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Tel: (347)513-1351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Tel: (845) 359-1458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96-4040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Tel: (604)584-5780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Tel: 011-55-11-3270-9233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3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Tel: 3277-1488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열 Tel: (54)114-631-1788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Tel & Fax: (56)2556-7628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건 Tel: (416)490-9060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영복한국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Tel: (808)947-5252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Tel: (52)33-3507-4111 Goya 530 Manuel, Acuna, Guadajajara MEX(멕시코)</p>	

신앙칼럼

빈 들에서의 기적(Miracle in a Remote Place)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현신의 결과다(The Result of Devotion)

빈 들에서의 기적은 한 소년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마 14:17). 한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차용호 목사 (센터발원인장로교회)



축사하시고"는 "축복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빈 들에서의 기적은 제자들의 현실과 믿음의 경계에서 믿음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빈 들에서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영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치앙마이 기행

태국으로 왔다. 뿌연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고 보슬비가 수줍은 듯 보였...

순박하게 보이는 현지인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곳 저곳에서 진료를 본 뒤 미용 부스를 찾아왔다. 전문 미용사와 함께한 나는 남자 머리를 시원스럽게 자르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한분 한분을 위해 영접 기도했고 많은 분이 목사님의 기도를 은혜하듯 따라 했다고 한다. 불교권인 태국, 동네마다 사원이 즐비한 이곳에서 의료와 미용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에 전율이인다.

태국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마친 뒤 저녁을 먹고 동네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범람하는 강물로 도로는 호수가 되었고 집집마다 모래주머니를 집 앞에 켜켜이 쌓아둔 채 그들의 보급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지난 이십육 년간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섬긴 선교사님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팬데믹 이후 많이 어려워진 선교지를 방문하며 섬긴 일이 선교사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

yanghur@gmail.com

Header fo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compass and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Churches reaching the world).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란교회, 든든한교회, 새이덴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A에서 320마일 떨어져 있는 중부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Monterey)에 위치한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게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몬트레이에 올라가게 되어 미국에서

가장 길고 경치가 좋은 해안선이 있는 빅서(Big Sur)를 구경할 겸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빅서에 가서 매혹적인 해안 경관의 보석이라는 맥웨이 폭포

(McWay Falls)를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맥웨이 폭포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80피트(24미터)의 높이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흘러내리는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폭포입니다. 최대한 운전 속도를 높여서 빅서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웬지 모르게 여유롭게 가자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65마일일 경우 보통 80마일에서 85마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LA에서 몬트레이로 올라가면서 모처럼 주위의 자연 경관도 보고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70마일에서 75마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운전을 하며 올라가는데 고속도로 옆길에 경찰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30분 뒤에 또다

시 경찰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올라가며 경찰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장면을 3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려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70마일로 운전을 하며 가는 한 나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즐기며 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단속하는 과속의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교통법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로교통법 안에서 운전을 하는 한 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언제 자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즐기며 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단속하는 과속의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교통법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로교통법 안에서 운전을 하는 한 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걱정을 하지

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속박으로 다가온다면 아직도 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을 때 진리 안에 거한 성도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gmail.com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개최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4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연합감리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

한인연합감리교회(총회장 이창민 목사)는 2024 한인총회를 ‘다시 은혜 앞에(고전 15:10)’라는 주제로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창민 목사는 “뒤숭숭한 교단 상황과 불투명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며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교단 탈퇴와 분리 이후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도 생겼다. 팬데믹과 교단 상황, 이

민자 감소와 교인의 고령화로 이어지는 위기 속에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공동체의 다양한 입장을 대표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숙제도 해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던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간에 발표한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파송한 14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교협약식을 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한인총회가 그 멋진 이야기들의 일부가 된 이들이 모여 다시 더 큰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

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형 목사(총무) 사회로 7일(월) 오후 7시에 열린 개회예배는 이창민 목사의 개회인사, 목회자연합찬양팀(인도 김희원 목사)의 찬양인도, 원종철 장로 대표기도, 도터 에스코베도 프랭크 감독(칼텍연회)과 정희수 감독(오하이오 에피스코팔지역)의 환영인사, LA연합감리교회 찬양대 찬양, 김 수 권사(홀리스톤연합감리교회)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이어 조은별 목사(Collevill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원흥연 목사(하와이베다니교회), 이순영 목사(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간증이 담긴 설교를 했다. 이어 정희수 감독과 도터 에스코베도 프랭크 감독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송중남 목사(델라웨어연합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 골프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 골프대회 성료

“수익금은 감신대 합창단 후원기금으로 사용할 것”

제6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김용근 목사) 주최 골프대회가 지난 9월 30일(월) 오후 1시 웨스트릿지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약간 무더위지만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기쁨으로 열린 이날 대회엔 총 24명이 참가하여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라운딩을 즐겼

다. 이날 골프대회 수익금은 내년 미주지역 순회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감신대 합창단 후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골프대회엔 동문 외에도 동문들이 담임목사로 목회하는 새생명교회(지성은 목사), 나성금관교회(김배선 목사) 교인들이 참가하여 더욱 자리

가 풍성했고 접수 및 음식준비 등이 깔끔하게 진행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영현 전 기감 서울연회 감독은 개회기도에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골프대회에 참석했는데 모교도 건강하게 발전하고 우리 서부지역 동문회도 더욱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회가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대회를 위해 수고한 동문회 임원들이 큰 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지성은 부회장의 진행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되었다. △근접상: 김희재 장로, △장타상: 최형근 목사, △메달리스트: 지성은 목사(남), 조애숙 사모(여), △챔피언: 박성준 장로. (정리: 박준호 기자)

큰빛감리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큰빛감리교회(담임 조현영 목사)는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를 6일(주일) 오후 3시15분에 거행했다. 조현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은희 장로 기도, 최성범 감리사(남가주지방) 축사, 진형명 장로 성경봉독, 생명샘 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조현영 목사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요 8:2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현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는 웨슬리 목사의 비석에 쓰여있는 것”이라며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축복된 삶을 살기위해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즉 첫째 말씀 선포이고 둘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셋째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사역”이라며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에 힘써 2세대들을 남미와 동남아에 단기선교를 보냈다. 그리고 교육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말씀과 성경공부 등으로 교육했으며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자들과 육체가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25년 동안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큰빛교회는 앞으로 복음전파, 가르침, 힐링하는 것에 매진하려고 한다. 교회가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응섭 장로 연혁보고, 감사패 증정, 임승호 목사(전 미주자치연회 감독) 격려사, 안건마 목사 클라리넷 연주, 조안숙 사모 헌금송, 광성자 목사(남가주지방 회계) 봉헌기도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성영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큰빛감리교회 창립25주년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인/터/뷰

‘Light of Life-The Love Story’ 주제 개인전 준비하는 폴 아트 리 목사

오는 10월26일(토)부터 11월16일까지 LA EK 아트갤러리에서 제 9회 폴 아트 리 목사 개인전이 열린다. 폴 목사의 작품세계는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생명의 빛(Light of Life)’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예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를 해 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 전시회의 부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로 정해졌다. 본지에서는 폴 목사를 만나 금번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폴 아트 리 목사

폴 목사는 “그림을 전시할 때 어떤 주제를 정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빛이 너희에게 임했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라는 이사가 60장 1-3절의 내용, 그리고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요한복음 1장 4절)를 알려주셔서 ‘생명의 빛, 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라며 “이번 개인전은 특별히 초대전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갤러리에서는 이번 초대전이 마쳐지면 내년에 열리는 LA아트쇼에 저를 메인 작가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LA아트쇼에 메인작가

복음의 메시지가 심어져 있었고 그의 활동무대가 한인 커뮤니티 중심이 아닌 다인종, 다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마치 사도바울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는 작품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폴 목사는 “저는 작품 활동을 할 때 상징을 통해 영혼과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 작품은 거의 모든 작품이 사각형 라인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는 희망으로 바뀌는 때라는 것이다. 그럴 때 마다 예술작품이 어떤 의도로 만드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귀띔했다. 특히 프랑스의 예술세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파리 올림픽때 신성모독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충격을

“개인전을 접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영적 각성을 경험케 하고파”

로 지정이 되면 전시장 가장 중앙에 저의 작품이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폴 목사에게 “폴 목사와 처음 인연이 되었던 2019년부터 폴 목사의 작품 활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예술계의 사도바울과 같은 인상, 그리고 마치 무렵지 않아 오는 무렵의 고수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폴 목사는 씩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느꼈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폴 목사의 작품은 모두

양은 예수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물방울 하나를 그릴 때는 3위 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수고 즉 구속의 역사를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기억에 남는 것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폴 목사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절망에서 다시 한 번 살아보겠노

폴 목사는 이번 초대전이 마친 후에는 프랑스 파리에 열리는 르사롱 드톤느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된다. “파리에서 열리는 르사롱 드톤느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예술인으로서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 하지만 전시된 작품들을 볼 땐 흑암 속에 있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충분히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시회에 복음을 담은 저의 작품이 출품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자

안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펼쳐보이실 것인지 기대하게 된다. 이번 9번째 개인전과 앞으로 있게 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폴 목사는 “저의 개인전을 접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장은 EK 아트갤러리(1125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이며 자세한 것은 (323)272-33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초대교회, 2024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2024년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대학생 자녀 또는 상기 네 개 주에 재학 중인 목회자의 자녀이며, 신청 방법은 이메일 scholarship.committee@njchodae.org 또는 온라인 www.njchodae.org or https://form.jotform.com/242695415902157 으로 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11월 3일 까지이다.

▲ 문의: 이시영 집사 215-485-6582, 이승혁 집사 917-838-7750

퀸즈한인교회, 복음과 연합 목회자 세미나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10월 22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퀸즈한인교회 바울로 2층에서 미국 목회자 12명이 각자의 목회 철학을 한 문장으로 나누며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복음과 연합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10불이며(현장 등록은 20불), 등록은 <https://forms.gle/Vsc3z3kjav3EohVY8> 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이다.

▲ 문의: 718-672-1150

Willbless, 댄스워십페스티벌 (Hi Heaven)

Willbless(대표 김창민 목사)는 10월 26일(토)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댄스워십페스티벌이 개최한다. 참가팀은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 퀸즈한인교회 합창팀, 뉴욕효신장로교회 Now Move 청소년댄스팀, Flow 댄스팀 등이다. 주최 측인 윌블레스(Willbless) 하이 헤븐(Hi Heaven)에서도 유헤림 뮤직디렉터, 아비가일 류 뮤지컬배우, 8인의 하이 헤븐 댄스팀이 출연한다.

▲ 문의: 917-499-9048



뉴욕 영적 각성 연합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회복을 위한 교역자 세미나 및 뉴욕 영적 각성 집회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와 한국칼빈부흥사회 MOU 체결

뉴욕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와 미션킴팅마이어(대표 임성식 목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칼빈부흥사회 목회자를 초청하여 10월 4일(금)부터 10월 6일(주일)까지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정현영 목사)에서 오전 10시30분 교역자세미나, 오후 7시30분에는 뉴욕 영적 각성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교역자 세미나는 조예환 목사(칼빈부흥사회 대표회장/부천갈보리교회)가 '사명으로 돌아가라! (룻 1:18-22)' '코로나 이후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요 21:15-17)'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규형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째 날 연합집회는 기도 박경자 목사, 설교 리종기 목사, 헌금기도 김봉규 목사, 헌금송 김영환 전도사, 축도 리종기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리종기 목사(칼빈부흥사회 상임회장/빛과사랑교회)는 '명문가문 만드는 비결 (룻 4:21-22)'이라는 제목을 통해 "기업무를 자는 능력, 친족 관계,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원수를 갚고, 씨를 이어주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서 영원한 기업 무를 자이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신다"고 전했다. 또한 "믿음의 명문가는 한 사람이 전도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유언을 이행하는 중요한 사명이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유언을 이루



2024 가을 대바자회가 퀸즈장로교회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24 가을 건축 대바자회 열려

다민족 사역 예배당 건축 기금 지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24 가을 건축 대바자회가 10월 5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창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 가운데 본 교회 지하헌교실과 파킹장에서 열렸다.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봄 선교 대바자회를 통해 캄보디아 시엠립에 설립한 벨렐국제학교 건축기금을 지원하여 현지 학교의 건축을 완공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을 건축 대바자회를 통해 현재 완공 단계에 가까운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사역 예배당 건축 기금을 지원했다.

대 바자회 당일 2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각 선교회 별로 준비한 음식들과 물품들을 판매하는 소 바자회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으며 이날 대 바자회는 젊은 세대로부터 80대에 이르는 고령의 선교회와 다민족(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성도들, 다음세대인 교육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도 각각 부스를 만들고, 바자회에 적극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각종 생활용품들과 중고 옷과 같은 더욱 다양한 판매 품목과 함께 새로운 음식 메뉴들을 추가 제공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열렸으며 교회 내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미리 주문 및 당일 픽업과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김재상 기자)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회칙개정안 통과

"작은 변화, 큰 평화"

52회기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10월 8일(화) 오전 뉴욕늘기쁜교회에서 18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10월 1일(화)에 열린 제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칙개정 상정안을 뜨겁게 심의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회장과 부회장 런닝메이트제가 부결되었으며, 기타 주요 이슈가 없는 작은 변화의 내용을 가진 개정안만이 임시총회에 상정되었다.

임시총회 상정안은 회원자격에 뉴욕에 거주하는 것만 아니라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도 추가했으며, 이전에 뉴욕에 살지 않으면서 회원으로 등록된 목사들도 소급하여 적용하기 배려했다. 또 9조 조직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체화하여 "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김재상 기자)



임실행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제21회 찬양대축제

10월 13일 카네기홀에서 개최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제21회 찬양대축제가 10월 13일(주일) 오후 7시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단장 이다니엘 장로는 제21회 찬양대축제를 앞두고 "1987년 뉴욕밀알선교합창단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 37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심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 39개 지회 합창단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진정한 찬양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통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감사를 올려드렸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모인 200명의 월드밀알선교합창단 단원들이 참가한다. 그리고 몽골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전용 목사, 필라델피아에서 오는 필리카메라타합창단, 그리고 멀리 캐나다 서부 밴쿠버에서부터 먼길을 날아오는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이 함께 특별출연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 1(화) 오후 WRC 국제적십자 (총재 권세라) / KOREA HOUSE 010-7675-0002
- 2(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희 목사) 010-2391-3004
- 3(목) 저녁 예산 백학수양관(원장 김정애) 010-9350-7004
- 4(금) 낮 인천 송도국제도시 빛과소금교회(조광원 목사) 010-8248-7004
- 5(토) 오후 한국교회 회복운동(총재 한요한 목사) 010-9578-0049, 정진희 목사
- 7(월) 오전 한인일보대담 한국기독교연감제작(대표 한영훈 총장) 010-2009-7272
- 7(월) 저녁 서울 성령순복음교회(박현신 목사) 010-2042-0591
- 7(월)~8(화) 낮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 9(수) 오전 구리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총장 최영 목사)
- 10(목)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부흥협의회 / 연세대 백영누리
- 11(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사단단체총연(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 12(토) 오후 Special Blessing Service
- 13(주) 오후 서울 열린교회(최대선 목사) 010-3298-8023
- 14(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김민준 목사) 서울 강남 영동제일교회(강석훈 목사) 02)518-5561
- 15(화)~18(금) Mission to Trip Asia
- 20(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21(월) 오전 KAICAM 목사 안수식 /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 21(월) 경산 빛나는교회(정경화 목사) 010-7706-0635
- 22(화) 오전 한일산기도원(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노헤미야부흥성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 23(수) 오전 화성 꿈넘어꿈교회(김현수 목사) 주최 : 월드기독교총연합회 (대표교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UN Day 연합성회 010-7567-8291
- 24(목) 오전~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97
- 25(금) 저녁 서울 누가선교연합회(김성만 목사) 주최 : 한미연합부흥사단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 27(주) 저녁 대전 주안교회(전정순 목사) 주최 : 한미연합부흥사단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정기총회(대표회장 박승주 목사) 010-7561-0191 한일교회(이승현 목사)
- 29(화) 오후 서울 축복기도원(변영화 목사), 양주시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07(도동3동) Fax. 02)401-7770

성경 해석학이 우리를 ...

(1면에서 계속)

독서 문화 형성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하나님의 학문(신학)과 이 학문이 생겨나는 문화를 포함합니다. 독서가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은 "독서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독서 문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으로서의 성경" 수업에 등록된 세상의 대학생들은 한 종류의 독서 문화에 속하고, 성경 연구 펠로우십에 참여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독서 문화에 속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지입니다.

성경에 부합하는 독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독서 문화의 존재와 영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자신이 독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문화에 속한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진함을 치료하는 방법은 교회 역사를 충분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로 교육적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

람들은 특정 문화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성경적 해석의 범위는 자신이 속한 독서 문화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제 작업 가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해석의 종류는 우리가 사회화된 독서 문화의 본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서 문화는 특정한 독서 방식을 중시하고 실천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들은 해석을 생성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커뮤니티의 기준과 관행에 따르도록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독서 문화 없이 주석이 가능할까요? 성경 해석자들은 자신이 본분에 가져온 전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특정 독서 문화에 의해 그 전체와 해석의 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결국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한 독서 문화는 무질서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합니다(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해석적 순환입니다. 독서 문화는 독자를 형성하고, 독자는 독서 문화를 형성합니다.

독자를 변화시키다

시급한 문제는 신학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는 독자들이 서로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율합니다. 신학교와 교회는 문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성경 독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을까요? 성경 해석학이 신학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 결국 기독교 문화를 형성합니다.

성경을 일반적인 글을 읽듯이 읽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세상의 글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제작(쓰기)과 수용(읽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책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다른 책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주요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원래 역사적 맥락이나 신학적 내용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독자 자신의 맥락 속

로 침투시키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자는 "말세를 만난 우리"(고전 10:11) 중 하나가 됩니다.

남은 질문은 독자들이 존 웹스터가 말한 "종말론적 문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형성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에 의해 생겨났으며, 우리의 세속적인 면을 침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맥락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하고 종말론적인 독서 문화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 텍스트, 독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하여 독서 과정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절한 신학적 맥락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종말론적 문화를 특정 민족, 국가, 학문 또는 교파 문화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의 종말론적 기독교 문화에 부합하는 순전한 기독교 해석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해석학은 독자들이 성경에 따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 받게 할 것입니다.

by Kevin J. Vanhoozer, TGC



실로암선교 미주후원회 임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상)과 음악회 오프닝 찬양을 들려주고 있는 나성영락교회브니엘 합창단(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

“어둠속에 빛을! 눈병 없는 밝은 세상을 꿈꾼다”

실로암 안과병원(원장 김선태 목사)이 주최하고 실로암선교 미주후원회(이사장 홍춘만 목사)가 주관한 제 10회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돕기 자선음악회가 6일(주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용장영 목사(LW 한인커뮤니티교회)의 개회기도와 김선태 목사의 영상인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나성영락교회 브니엘 여성 합창단이 ‘내가 산을 향하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첫 무대를 장식했으며 9개의 합창단과 70여명으로 구성된 Young Artists Orchestra of Los Angeles 아름다운 연주로 구성됐다.

한 선한목자교회 합창단원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의 찬양을 기드온을 소개하는 나레이션과 함께 힘차고 박력 있게 불러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마지막 곡은 연합 성가대의 ‘할렐루야로 장식되었으며 박은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음악회 중간에 실로암선교보고 영상을 통해 “실로암선교회는 현대 의학과 과학이 잡지 못하는 것을 다 치료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찾아 주고자 마음을 모은 모임”이라고 소개한 뒤 미주후원회 임원소개와 대흥장로교회와 선한목자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합창단은 나성영락교회, 대흥장로교회, LA 여성선교합창단, 남가주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사랑의 부부합창단, 선한목자교회,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미주여성교회, LW 한인커뮤니티교회에 참여했다.

실로암선교 미주후원회에 관한 문의는 (714)323-0897, (213)519-1277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24밀알의밤에서 싱어송라이터 하림이 노래하고 있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 성료

싱어송라이터 하림 - 은혜와 간증의 시간 이어져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2024 밀알의 밤 행사가 성료됐다. 10월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밀알의 밤은 싱어송라이터 하림이 메인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곡과 찬양곡을 불렀으며 음악 프로듀서와 싱어송 라이터로 활동하며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갔다. 5일(토)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 두 번째 날 밀알의 밤에서 하림은 “20년 전 가수 박정현 씨의 앨범 녹음을 위해 프로듀서로 미국에 왔었다. 프로듀싱을 하면서 언젠가 나의 앨범을 내고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정식으로 가수가 되었다”고 말할 뒤 “이번 밀알의 밤에 게스트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밀알사역에 대해 찾아보고 단장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밀알의 사역에 진심이 느껴져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밀알의 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가슴속에 심고 한국으로 가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 전통음악에 매료되어 아일랜드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아프

리카에 다녀와서 만든 노래로 공연을 열고, 10년 넘게 ‘기타 포아프리카(Guitar for Africa)’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어린 뮤지션들에게 악기를 전달한 이야기,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콘서트를 열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기타포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어린 뮤지션들에게 기타를 전달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악기를 전달해주는 것 외에도 그들이 기타연주를 할 뿐만 아니라 가수가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맺혀진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하림은 ‘출국’, ‘난치병’, ‘여기보다 어딘가에’, ‘위로’ 등 자신의 곡과 ‘You raise me up’, ‘피아노맨’, ‘보라 하나님은’을 불렀다. 이날 밀알의 밤은 김병학 목사(주님의 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4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와 6일(주일) 오후 6시 엘바인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한인들의 간 건강 향상을 위한 세미나

건강한 식생활과 유산소운동으로 간질환 예방

전미간암예방의 달을 맞아 한인들의 간 건강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남가주새누리 교회, 유스타 파운데이션, 시더스 사이나이 암센터 아웃리치팀, 고려보건소 공동주최로 5일(토) 오후 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시더스 사이나이 간암 프로그램 메디칼 디렉터인 양주동 박사가 간염, 간경화, 지방간 등 간질환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간암 조기발견 및 최신 암치료 발전에 대해 강의했다. 양주동 박사는 “주요 간질환은 B형간염, C형간염, 지방간, 간경화(간경변증), 간암을 들 수 있는데 B형간염은 백인들에게서는 잘 나오지 않고 한인들에게 많이 발견된다. 반면 C형간염은 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는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자들 중 B형간염으로 인해 사망한 자들이 70%정도 된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간질환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 간질환은 100% 완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알콜성 지방간 진행과정은 정상간이 지방간염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는 치료로 정상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간염이 악화되어 간경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간암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간염이 심해지면 당뇨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심부전 및 심근경색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정상회복이 힘든 단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는 “건강한 식생활과 꾸준한 유산소운동은 간질환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주치의나 간전문의를 통해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하며 함양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간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양박사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함께 이루어졌다. (박준호 기자)



한인들의 간 건강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양주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에서 김문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계부흥회가 ‘복음의 전달자(마 28:16-20)’라는 주제로 3일(목)부터 6일(주일)까지 김문훈 목사(부산포도원교회 담임)를 감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6일(주일) 오전 9시10분에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이상홍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문훈 목사가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인 ‘복음의 전달자(마 28:16-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문훈 목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사 람을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과 환경도 허락한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본문은 사람, 사명,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악귀에 시달린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배달

부가 되어 제자들에게 전한 자가 되었다. 주께 쓰임 받게 되면 최악이 최상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룟유다는 배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머지 열한제자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유다와 다른 것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회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 쓰임 받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세계 열방을 품어야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주님은 고아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충성된 자들이 되어 사랑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기독한의사협회, 비전연합예배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비전연합예배가 13일(주일) 오후 4시 조이플교회(담임 이상준 목사)에서 열린다. 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한의학 가치 재확인, 각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나누기, 비전과 실행에 대해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게 된다. 이날 특별 초청강사는 손영규 목사(경주 새교회 리더목사, GAMA선교회 대표, 소망이비인후과 원장) ▲ 문의: 213-500-6393

커피브레이크 LA 인도자 워크숍

오는 10월 26일(토) 로스앤젤레스 미라클 LA 교회(3460 Wilshire Blvd. 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에서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이 열린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소그룹을 왜 하며,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커피브레이크만의 독특한 성경 학습법인 ‘성경 발견 학습’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소그룹 리더십과 전도 방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할 수 있다. ▲ 문의: 760-672-5800 kaydoke70@gmail.com

라크마 음악장학생 모집

라크마(이사장 최승호 박사, 음악감독 윤임상 목사)는 음악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음악 전공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대학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음악도이며 총 6명을 선발하여 1000-3000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오는 12월 8일 라크마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콘서트 때 오케스트라와 협연기회도 주어진다. 장학생 지원은 웹사이트(TheLakma.org)를 참고해 31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 문의: (213)924-7563, lakmainfo@gmail.com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2024년 말씀으로의 초대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2024년 말씀으로의 초대(가을 말씀 부흥회)를 “거룩한 열심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주일예배시간에 갖고 있다. 두 번째, 말씀으로의 초대는 13일(주일) 1-3부 예배시간에 갖게 되며 노진준 목사(설교교장미니스트리 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의 초대는 20일(주일)에 갖게 되며 강사는 권준 목사(사예들형제교회 담임)이다. ▲ 문의: (714)893-1652



홀러튼장로교회 창립50주년 감사예배에서 임직받은 자들과 담임목사가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홀러튼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비결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

홀러튼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 창립 50주년 감사예배가 6일(주일) 오전 10시에 거행됐다. 황인철 목사는 “저희 홀러튼장로교회가 창립하고 5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우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유영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는 박찬 목사가 기도했으며 서정운 장신명예총장, 허영진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원로목사, 홍성길 남사울은혜교회 원로목사, 김경환 실크로드 컨택션선교회 대표, 심삼래 한마음교회 담임목사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어 40년 이상 출석한 교인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는 후 노진걸 목사가 ‘가화만사성(롬 14:15-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진걸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당건물, 친교실, 교육관 등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더 크다”며 “교회

도 하나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와 가정 우리가 가는 어디 서든지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의로움이 있어야 화목도 오고 기쁨도 온다. 의로움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비결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력, 지혜 그것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홀러튼 장로교회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의롭게, 화목하게, 기쁘게 살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황인철 목사 집례로 시작된 임직식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서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이어 본교회 남성중창팀이 축송을 불렀으며 황천영 목사(다우니제일교회 원로)가 권면을 이날 임직 받은 허용석 장로가 감사했다. 이날 예배는 황인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창립50주년 기념음악회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교회 안팎에서 다음세대 세우기...

'맥모닝 새벽기도' 부터 위기 청소년 돌봄 사역까지

‘맥모닝 새벽기도’. 서울 대학로 인근에 있는 혜성교회(명명호 목사) 교회교육 부서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붙는 명칭이다. 맥모닝은 한 햄버거 브랜드의 아침식사 메뉴 명칭이다. 이 교회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천다니엘 목사는 올 초 한 학생이 새해 목표로 ‘새벽기도 참석하기’를 정하자 기도회를 마친 뒤 햄버거를 함께 먹자는 제안을 건넸다. 이후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아침을 사주겠다”고 학생들에게 제안하면서 더 많은 청소년이 동참하게 됐다. 한 자릿수를 맬뭇던 새벽기도 참석 청소년은 10여 명으로 늘었고 부모들의 참석도 덩달아 증가했다. 천 목사는 7일 오후 줌(Zoom)으로 진행된 ‘교회 회복

을 위한 세미나 CPR(Church Planting Restoration)에서 이 같은 사역 활동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맥모닝 새벽기도부터 은둔·고립 청소년을 돌보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를 겨냥한 창의적인 사역 노하우가 공개됐다. ‘5단계 신앙상태 분류법’에 따른 혜성교회 교육부의 맞춤형 접근법도 눈길을 끈다.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들의 신앙 상태를 커뮤니티·회중·성도·헌신 멤버·핵심 멤버로 나누고 신앙생활의 깊이 정도에 따라 케어하는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이 매주 내놓는 기도 제목을 기록한 ‘기도카드’를 활용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 천 목사는 “기도카드를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곳으로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고급 음식을 사주는 ‘스페셜’ 시간을 함께 갖는다.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질문은 ‘뻔뻔함’ 전략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가 하면 일명 ‘가나안’ 학생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어 교회로의 복귀를 돕기도 한다. 서울 성동구의 소울 브릿지교회(반승환 목사)는 위기 청소년 케어에 특화돼 있다. 반 목사는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현재 경계성 지능·고립·우울 등의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학교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 목사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심리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도움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를 만나 어떻게 그들을 세워갈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탠드그라운드스는 2012년부터 스쿨처치 사역을 시작해 청년 및 다음세대 사역 네트워킹을 지속해왔다.



낙후된 광산 지역 섬김이...

“사회 선교 하나님 뜻이라 여겨”

전도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이다. 광산지역 복지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폐광 이후엔 카지노 중독자들까지 돌본 최준만(72) 태백연동교회 원로목사가 제9회 이자의 목회자상을 받았다. 이자의 목회자상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낮은 곳으로, 작은 자를 기억하며, 아래로부터의 섬김에 충실한 지역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자의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류철량 목사)는 7일 강원도 태백연동교회(안대웅 목사)에서 제9회 이자의 목회자상 수상 감사예배를 드렸다. 목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자의 목사 후

손 대표의 성경 봉독과 기념사업회 이사장 류철량 목사의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영혼’ 설교로 이어졌다. 2부 시상식에선 특별히 1934년 발행된 ‘방언찬미가’의 제33장 ‘전도회가’ 찬송이 불려졌다. 참석자들은 이자의 목사가 활동하던 당시의 교세와 전도 열정이 담긴 찬송 ‘삼천여리 반도/ 사천여 교회에/ 오십여만 성도/ 남녀 전도회’를 함께 불렀다.

수상자인 최 목사는 “광산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 열 살 때 태백에 왔고, 대학 진학을 위해 떠났다가 목회자가 돼서 돌아와 낙후된 광산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다”면서 “미

국에서 공부한 사회 선교적 신학을 태백에서 실천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인 없이 목사 없듯, 상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받는 것”이라며 “사회 선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따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교우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연세대 경제학과,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원과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전주 기전여고 교목실장을 거쳐 태백연동교회를 개척하고 시무했다. 광산지역 복지선교회 총무로 양로원,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 사랑의 도시락 등을 운영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송아지 무료 분양 운동, 조현병 환자를 위한 교회 설립을 도맡았다. 그는 카지노 중독자를 위한 사역에도 힘써 도움을 격려하는 성직자 모임을 설립해 이사를 맡았고, 중독자 회복을 위한 치유 예배와 카지노 노숙인 밥퍼 사역도 펼쳤다.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문성모 목사는 “이자의 목사님은 농촌교회 목회자로 장로교단의 전무후무한 3선 총회장 출신”이라며 “이 목사님의 정신을 받들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종들을 격려마다 발굴해 세상에 소개하는 상”이라고 전했다.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 측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불복하면서 대전고등법원에 상고

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판결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상소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 변호인 측은 상고장을 제출한 이날은 JMS 2인자로 불렸던 김지선(일명 정지은)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날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수사강간죄, 준수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징역 7년형 원심을 받아들였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한글날 맞아 한국 전통 음악 선보인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단장 최동익)이 오는 9일 전남 진도군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2024 한글날 기념 기획공연 ‘세종이 꿈꾸었던 세상, 바른, 고른, 너른, 누리’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궁중음악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는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며 전통과 현대가 멋스럽게 어우러진 관현맹인의 공연을 통

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애민 정신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바르고 고르며 너그러운 세상의 참뜻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구성됐다.

단원들은 조선실록에 실려있는 정약함주 ‘여민락’과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기악합주 ‘산조합주’ 판소리 ‘범 내려온다’ 해금 독주 ‘소라개와 월식’ 국

악관현악 ‘산책’ 남도민요 ‘동백타령’ ‘신사철가’ 실내악 ‘신명의 아리랑’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현맹인(管絃盲人) 제도는 600여년 전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주고 궁중악사로 연주하게 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반영된 제도다. 관현맹인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잠시 폐지됐다가 효종이 부활시킨 후 조선 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기록과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세월이 흐르며 잊힌 관현맹인 전통을 재현하고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창단했다. 예술단은 시각장애인 연주자에게 전문음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시각장애인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축제로 뭉친 다문화 교회들

나눔의 만남을 키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인사말이 한자리에서 들려왔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가 만나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교회 앞마당과 탄천변에서 ‘제12회 다문화가족축제’를 열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현지어로 음식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더 퍼주는 세계 음식 부스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부스인 ‘마음약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문화가족의 집수리를 돕는 ‘새

로고침’ 부스도 설치됐다. 세계 음식과 베품시장, 다문화 체험 부스와 키즈존 등을 통해 우리 안의 세계 이웃을 직접 만나는 자리였다.

충남 아산 신창면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신창비전교회의 박다니엘(66) 선교사는 성도 100여명과 함께 만나교회가 준비한 전세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축제에 참여했다. 다문화교회인 신창비전교회는 이날 중앙아시아 음식인 샤슬릭 바우

르스 등을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과 나눴다.

인솔자인 박 선교사는 “충남 아산에서 201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과 김치를 나누며 전도하기 시작해 지금은 100여명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다문화·이주민 선교에 관심은 많지만 규모 있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데, 만나교회의 장학금 지원과 영성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거듭나고 본국으로 돌아서도 가정예배를 이어가는 등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 축제에 대해선 “일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박 선교사는 이어 20대 카자흐스탄 출신 유학생 사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순천향대에 재학 중인 그는 학과 변경을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긴급하게 필요했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사사는 이후 주일 오후 3시 신창비전교회에서 외국인 성도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나눔의 씨앗이 전해져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

사랑의 열매에 100억 전달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1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억원 모

금 운동의 1차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해 이뤄졌다. 기증된 금액은 자립준비청년과 미혼모, 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기증식에 참석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교회의

따뜻한 나눔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이번 기부금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위는 기증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열리는 200만 성도 연합예배 취지와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광화문과 시청, 송례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모든 교파가 연합하는 대규모 행사다. 동성혼 합법화 시도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계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한국교회가 해당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신앙적 가치를 수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교의 창 (24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해방 후 한국교회가 파송한 첫 선교사

오는 10/19일은 고(故) 최찬영 선교사가 소천하신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 분은 명예롭게도 해방 이후 한국교회가 타문화권에 처음 파송한 선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친구와 어머니의 권유로 1948년 남산에 위치한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50년 6·25전쟁이 나고 인민군에 잡

받아 놓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 관계자가 찾아왔다. 해방 후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최 선교사가 혹시 태국 선교에 뜻이 있는지 물어왔다. 그는 아내와 밤새 논의한 끝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선교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공부하는 길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선교사의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아닌가. 나는 덤으로 살아 왔는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국민일보 인터뷰).

3. 선교사 파송 시 한국의 상황
최찬영 선교사 부부는 1955년 4월 24일 한경직 목사가 시

4. 선교사로서 태국 입국
1956년 6월에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항공편이 없었다. 우선 비행기로 홍콩에 도착한 뒤 방콕까지 배를 타고 들어갔다. 사모는 임신한 상태였다. 당시 태국은 한국에 비해 여러 모로 발전한 나라였다. 큰 서양 선교사를 기대했던 태국 현지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면 멸시적인 태도로 대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가 언어를 배우고 1년 만에 태국어로 공중학교를 하게 되자, 비로소 그들은 선교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내가운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하고 BIT신학교 교수, 방콕 제2태국인교회 담임, 방콕 기독교 병원 원목으로 활동하다 태국성서공회 총무 직을

해 중국 남경에 성경 인쇄공장을 설립하는데 산파역할을 하였다. 그 공장을 통하여 2019년까지 2억 권의 성경이 인쇄되었다. 9천만 권은 중국인을 위하여 나머지 1억 1천만 권은 다른 지역을 위하여 배포되었다.

6. 은퇴 후 사역
최 선교사는 37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1992년 2월 66세의 나이로 은퇴를 결심했다. 그러나 말만 은퇴지 사실상 선교사로서의 제2의 인생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은퇴 이후 미국 풀러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책임자로서 5년간 연봉 1달러만 받으며 신학생과 후임 선교사 양성에 힘썼다. 옛날 청년 시절 태국 선교를 위해 포기

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원주민과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선교지 현지 교회가 없거나 아예 협력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개척선교의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한 현지 교회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8. 맺음 말
최찬영 선교사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6시 50분(미서부 Time)에 LA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6세였다. 그는 1992년 은퇴까지 37년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교사로서 고단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였다. 특히

최찬영 선교사는 해방 후 한국교회의 제1호 파송 선교사였다. 그 분은 인격이 고매하고 삶이 깨끗하며 성경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하나님의 킹덤을 앞세우며 늘 연합을 강조한 최 선교사는 국제신사이셨다.

교사로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최 선교사님은 한인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기셨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금 우리는 본이 되신 고인(故人)의 바톤을 이어받아 사역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그 분의 생애와 인격 그리고 사역적 열매는 어떠한가? 해방 후 한국교회의 첫 선교적 열매로서 앞서가신 선교사님을 회상해본다.

1. 최 선교사의 어린 시절

최찬영 선교사는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나 만주 땅 연길에서 성장했다. 1945년 간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이 되자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혀 3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9·28 수복 후 육군군목으로 복무하던 시절에는 타고 갔던 트럭이 3m가 넘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휴전되고 1954년 최 선교사는 독립운동가로 순교한 김예진 목사의 딸이자 의사였던 김광명 사모와 결혼했다.

2. 선교사로서 결단

최 선교사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55년 풀러(Fuller) 신학교 장학생 자격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 아내 김광명 여사(2017년 작고)도 LA 카이저 메모리얼 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제의를

무하는 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나라였다. "1956년 한국의 개인 GNP는 66불이었다. 태국은 138불이었으니 태국 국민 소득이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미국은 2,674불이었다. 숫자만 보면 미국은 40배 이상인 셈이다." 사실 6.25 이후 한 반도는 피폐한 상태였다. 한국은 재정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이었다. 한국 전체 수입의 13%와 한국 정부 예산의 40% 이상이 미국정부의 지원이었다. 미국에서 밀, 보리, 쌀 등 다. 미국이 없다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였다. (최찬영 인터뷰).

감당하게 되었다.

5. 최 선교사의 중점사역

그는 1962년 6월부터 아시아인 최초로 태국·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로 봉사했다. 197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로 취임해 1992년까지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 번역, 인쇄, 배포에 주력했다. 그의 전체 37년의 선교사역중 30년을 성서공회에서 섬겼다. 특히 그가 총무로 섬기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외부에서 성경 반입이 불법인 중국에서 세계 최대의 성경공장이 세워진 것이다. 그는 1987년 12월, 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 Amity Foundation)를 통

했던 꿈이 약 40년 만에 이뤄진 셈이다. 2009년에는 LA 또 감사 선교교회를 통해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부산 해운대에 터를 잡고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을 돌봤다. 2017년부터는 Son Ministry 김정년 선교사를 도와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펼쳤다. 그 분은 이렇게 눈을 감을 때까지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7. 어록(語錄)과 바램

최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을 남기셨다. "선교란 모든 사람 입으로 주를 시인토록 하는 것이다. 선교는 민족주의나 제국주의가 아니라 신국주의 이다. 선교란 예수님께

1978년부터 15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서공회 총무로서 성경 번역, 인쇄, 보급에 힘썼다. 최 선교사는 은퇴한 후에도 원로로서 후진양성과 각종 집회에서 말씀감사로서 귀한 사역을 하셨다. 고인의 사역 내용이 자랑스럽거나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보다 사람을 좋아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편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고매(高邁)한 인격의 소유자이셨다. 최 선교사님을 본받는 제2, 3의 선교사들이 줄지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5강 한나, 사무엘 (사무엘상 1-7장)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이 본격적인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 가 제사장으로서 있었고 그의 아들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삼상 1:3).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제사를 휘방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을 먼저 취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합니다(삼상 2:12-17). 또한 이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삼상 2:22). 성경은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삼상 2:12). 그래서 성경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호 6:3)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왕을 시작으로 나오겠지만 제사장이든 왕이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좋겠으나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데(삼상 2:23-25)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고 합니다(삼상 2:25).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존중하여 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여 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30)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며 엘리에

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삼상 2:29)는 말로 엘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한 성경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삼상 3:13). 결국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전제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삼상 4:11).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를 통해 드러난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이 그러하였다면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삼상 2:35)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무엘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사무엘 역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신 18:15)라는 말씀과 같이 공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르심' 받는 사무엘

이런 배경을 가진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삼상 2:26). 하

나님이 그에게 노아와 같이 삼손과 같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삼상 3:1-14). 사무엘의 출생 이전부터 출생의 이야기는 이삭과 요셉을 묶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요셉이 극적 부르심이 없었던 것과 달리 사무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창 12:1-3)과 모세를(출 3:4) 묶은 듯 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반복해서 달려갔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삼상 3:10). 그리고 그 말씀은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였습니다(삼상 3:13,14).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엘리 제사장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들이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표성을 띠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사는 사무엘

사무엘의 경우도 이삭 그리고 요셉과 같이 이 과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무엘의 겪어야 할 이러한 up and down의 과정 중 down의 과정은 이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살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아론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평화의 언약을 받았다면'(민 25:1-13) 같은 이름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져버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 됩니다(삼상 2:30/ 왕상 2:27).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아직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삼상 4:1). 그리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삼상 4:2). 그러면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온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원인 분석'을 잘못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삼상 4:3)라는 원망의 말을 던지고서는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삼상 4:3)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찾지 않은 것만으로 족했다고 말해야 할지 참 답답하다 못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없이 법궤를 우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떨게 하였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삼상 5:1-12).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싸우신 출애굽 전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왕과 백성들도 장자의 죽음을 겪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휘저어버린 가사, 가드, 아스돗 등의 지역이 여호와의 정복 전쟁에 남겨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수 11:22). 이후 '하나님의 궤'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오지 않으시고 기럇여아림에서 20년간 머물게 됩니다(삼상 7:2).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무엘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삼상 3:19,20)는 말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삼상 4:1)는 말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번째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무엘의 성장 이후의 삶은 출생 이전과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자체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를 열고 다시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으로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게 될 다윗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hfamil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드보라의 노래 (삿 5:1-18) 찬 474장

하나님의 승리를 맛 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이여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성전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호와와 원수, 의의 원수 곧 말씀의 원수는 태양을 등진 나무처럼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순간의 영적 전쟁에 겸손히 임할 때 주께 헌신한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정을 초월하여 하나님

님 편에 선 아엘의 결단은 귀한 일입니다. 이방어인으로 알려진 아엘은 자기 남편의 친구인 시스라를 죽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합이나 롯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에 인정을 초월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는 헤아림이 넘칠 것입니다.

화 드보라의 확신(삿 5:19-31) 찬 96장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는 메로스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패배한 사건을 본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요? 첫째, 여호와 임재의 상징으로 땅이 진동하여 원수를 멸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영적전쟁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하면 됩니다. 둘째, 자원하

여 헌신한 마음을 통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바락, 아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은 모든 영적 승리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말한 7가지 전신갑주 즉 구원, 의, 진리, 전도, 믿음, 말씀, 기도도 모두 헌신된 마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집니다.

수 선지자의 말을 듣자(삿 6:1-10) 찬 313장

40년의 평안 가운데 또 범죄하여 7년간 징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사가 구원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다시 깨우쳐서 혼미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기 때

문입니다. 둘째, 과거의 구원을 회상시킴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야곱 중에서의 구원을 회상케 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에도 반드시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시킴과 난관에 있을 때마다 첫 구원을 기억케 하신 것은 첫째 회복의 청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인 성경의 세미한 소리를 잘 들읍시다.

목 기드온의 소명 (삿 6:11-24) 찬 355장

소명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이며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첫째, 그를 불러 사명을 맡긴 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사자를 주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는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미 경외하는 신앙 위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름에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둘

째,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먼저 그는 부르신 분을 알리는 일련의 확증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동기라기보다 더 깊은 순종을 위한 확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심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여호와 살생을 체험했습니다. 그 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맞보았기 때문입니다.

금 영적지도자의 요건 (삿 6:25-40) 찬 390장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첫째,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드온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소명이 분명할 때 맡긴 일을 즐거움으로 끝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긴 권위가 바로 만유의 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25-32절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

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기적보다 낫습니다. (Luther) 일관된 말씀순종이 지도자의 생명이입니다. 셋째,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33-40절에 보인대로 기드온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할 때 구원과 기도응답의 확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을 좇아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1:8)

토 선별 기준 (삿 7:1-14) 찬 393장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연합군을 이기는데 고작 300명만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해 줍니다. 정예 용사를 선발하는 기준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 곧 불신자는 돌아가게 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둘째,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물에 엎드려 마시는 자 곧, 안일에 빠진 사람도 제외시켰

습니다. 가시떨기 밭 같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쉽게 타협된 사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잘 받아 인내하여 지키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셋째, 앞을 내다보고 개척된 물을 마신 사람 곧, 깨어 근신하는 신앙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전에 쓰임 받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음악 이야기(66)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음악의 재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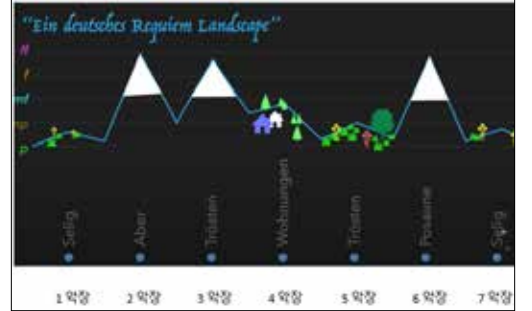
“라틴 텍스트에 의한 레퀴엠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을 중심으로” V

과 고통 속에 나타나는 역설의 축복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전개해 간 것이다.

2) 텍스트 및 작곡 구조

총 7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전통적인 고전 양식을 사랑한 브람스답게 다양한 대칭 구조(Symmetrical Form)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곡 구조 도표)



위의 작곡 구조 도표를 보면 우선 이 작품은 4악장에 표현된 천상의 아름다움(Wohnungen)을 중심으로 대칭이 이루어지는데 4악장에서 각각 1악장과 7악장은 각각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 중 팔복과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각각 '애동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와 '죽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와 같이 텍스트가 '복'(Selig)이라는 단어로 1악장과 7악장은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악 동기까지 공유하며 각각 시작과 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효과를 전해주고 있다

이어 2악장과 6악장은 가장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는 내용을 가진 베드로전서를 인용한 2악장은 삶에 대한 찰나의 본질을 고찰하며,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의 내용을 담고있고, 히브리서를 인용한 6악장에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일으키로다'라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인용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새로운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며 서로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대칭인 3악장과 5악장은 위로(Trösten)의 주제를 갖고 각각 바리톤과 소프라노의 시작으로 전개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한을 알게 하사'라는 내용을 가진 시편을 인용한 3악장은 여호와를 향해 끊임없는 삶의 질문을 던지며 답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냈다면, 5악장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위로하는 모습을 담아내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To be Continued

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운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94. 남편의 정의

남편은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배우자이며, 동시에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가장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남편(男便, Husband)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결혼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를 그 여자에 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남편(男便)에 대한 직접 호칭은 '여보', '당신', '임자', '영감, 등이고, 지칭으로는, '남편', '우리 집주인', '바깥양반', '그이', 'OO(아이 이름) 아버지', '남군(郎君)', '부군(夫君, 지아비)', '서방(書房)', '신랑(新郎)' 등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편이란?' 제목으로 모아온 자료들을 편집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남편이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웬수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인 사람입니다.

2. 남편이란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한 사람입니다.

3. 남편이란 집에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4. 남편이란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5. 남편이란 늦게 들어오면 열받지만,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쓰이는 사람입니다.

6. 남편이란 옆에 있으면 보기 싫고,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7. 남편이란 안고 있으면 포근하지만,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입니다.

8. 남편이란 한번 싸우면, 모른 척 못 이기는 척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9. 남편이란 말을 걸면 귀찮고, 말을 안 걸면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10. 남편이란 리모컨 뺏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드라마를 같이 봐주는 사람입니다.

11. 남편이란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집에 와서는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2. 남편이란 쇼핑하러 가면, 한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는 사람입니다.

13. 남편이란 아내가 큰 병에 걸리면 아내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14. 남편이란 아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아내가 전화 받을 때까지 다시 해주는 사람입니다.

15. 남편이란 라면을 절반 먹다 남기면, 아깝다고 다 먹어버리는 사람입니다.

16. 남편이란 아내 몰래 수많은 일을 하고도 종래는 티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17. 남편이란 '가깝고도 먼 당신'입니다.

18. 남편이란 퇴근이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한 사람입니다.

19. 남편이란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착한척하는 사람입니다.

20. 남편이란 아내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꽤가망신하는 사람입니다.

21. 남편이란 타인으로 만나서 혈연보다 더 가깝게 맺어진 무촌 법적 인연인 사람입니다.

22. 남편이란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귀찮은 사람입니다.

23. 남편이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24. 남편이란 내가 화났을 때,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25. 남편이란 돌도 없는 절친, 의-리를 지켜야 하는 동지,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 좋은 친구, 애완동물 같은 사람입니다.

26. 남편이란 몸 주고, 마음 주고, 돈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27. 남편이란 내 모든 걸 아는 사람, 그러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28. 남편이란 우리 집 든든한 기둥이고, 지붕이요, 나와 아이들의 큰 그늘과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29. 남편이란 큰 아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싸울 땐 원수이기도 한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30. 남편이란 음식 먹을 때 내가 싫어하는 부분, 부위를 맛있게 고집스럽고, 호기심 천국, 뒤편 지 재밌으면 울인하는 완전 막내동생 같고, 재밌거나 감동적인 동영상 있으면 반드시 카톡으로 공유하거나 메모했다가 읽어주는 오빠같은 사람입니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1. 남편이란 가슴에 얹는 돌덩어리입니다. 가슴은 김치나 오이지에 눌러놓는 용도로 필요한 정도, 또 가슴은 걸터앉을 수 있는 바윗돌 정도, 그래도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용한 사람입니다.

32. 남편이란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키워야 하는 돈 벌여주는 큰 아들같은 사람입니다.

33. 남편이란 사이 좋을 땐 내?편, 사이 나쁠 땐 남의 편,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34. 남편이란 평생 베프, '주) 행복한 가정'의 공동경영자입니다.

35. 남편이란 평생 친구요, 동지며, 큰 아들같지만, 등 돌리면 남남인 사람입니다.

36. 남편이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모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37. 남편이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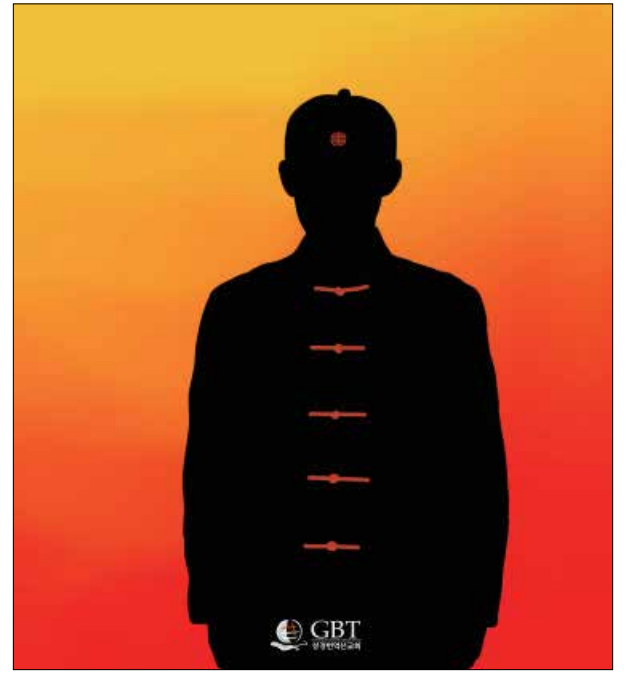
38. 남편이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높은 담이 아닌, '낮고 편한 울타리'같은 사람입니다.

39. 남편이란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오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40. 남편이란 '보호자', 즉 따가운 햇빛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우산같은 사람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라마 바이 종족

▲ 인구 약 6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87%, 무교 3%, 복음화율 1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라마 바이족은 중국의 공식 민족인 누족을 형성하는 언어 그룹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리수족의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열 개의 씨족으로 나뉘어 비장 일대의 열 개의 마을에 흩어져 산다. 천 명이 넘는 라마 바이족이 중국-미얀마 국경지대 해발 3,000미터가 넘는 험난하고 깊은 산악 지역에 산다. 무속이 중심이지만 소수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도제목

- 1. 깊은 산속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번역되어 구원의 소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2. 라마 바이족을 위한 일꾼을 보내 주셔서 교회를 세워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종말이 가까웠는가?

(2면에서 계속)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이 사방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성적 도덕성을 부인한다. 우리는 어쩌면 억제하는 자가 제거되고, 일반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

고 있는지도 모른다(살후 2:5-6). 세상을 둘러보자. 악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도덕성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악하고 위험한 메시지로 비난받고 있다. 이 시대가 보여주는 도덕적 타락과 복음을 향한 강렬한 적대감이야말로 분명한 종말의 징조이다. 핵무기, 인공 지능, 악성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본향이다. 지상에서는 결코 낙원을 찾을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도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또 기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지혜의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자. 그리고 매일 기도예에 게으르지 말자. "주 예수님, 오십시오!" by Thomas Schreiner, TGC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Includes churches like Galbraith, Da-jin, and others.

베드로 진서 31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하루에 두 번만



우리 집 식탁에 하루 두 번만 맞는 벽시계가 있다. 12시 04분에 고정되어있다. 다시 말해 고장 난 시계다. 비록 고장 난 시계지만 추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물론 배터리가 있는 한. 그러므로 우리 집 식구는 고장 난 시계로 알기에 일반적으로 시계가 말해주는 시간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터리가 없어 추가 흔들리지 않으면 배터리를 갈아준다. 고장 난 시계를 몇 차례 고

쳐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고칠 생각을 않고 그냥 추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즐기고 있다. 고장 난 시계.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루 두 번만 맞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 시계를 선물하신 권사님 때문이다. 권사님은 생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처럼 생각해주시고 좋은 일 좋은 물건이 있을 때 항상 나를 기억하셨던 권사님이셨다. 권사님은 이제 이 땅에 계

시지 않지만 시계추처럼 항상 움직이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사람은 일생을 살고 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고 나타냈던 사랑은 시계추처럼 가슴 속에 왔다 갔다 한다. 오늘을 살며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 있다면 그의 가슴에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사랑을 하자. 그 시계는 시간의 기능은 죽었지만 흔들리는 것처럼 그 사랑은 내 가슴에 늘 출렁인다. revpeterk@hotmail.com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가을 천국

가을입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무르익어갑니다. 서쪽 하늘에 지는 붉은 노을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바람 따라 뒹구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애뜻한 사랑, 이별의 아픔에 가슴이 저칩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있습니다. 단풍, 낙엽, 노을, 사랑, 이별, 국화, 귀뚜라미, 그리움, 쓸쓸함, 천고마비, 고추잠자리, 코스모스, 독서, 사색, 여행 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10월에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러트 영양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피부미용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제철 과일을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는 빼놓지 않고 사과를 꼭 먹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기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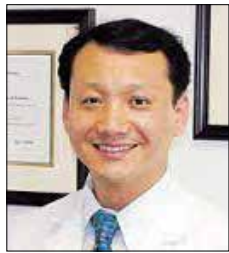
아담과 하와는 감사의 과일 대신 욕심의 과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에는 과일이 풍성합니다. 배, 감, 귤, 무화과, 모과, 석류,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가을 과일의 왕입니다. 비타민이 많고 영양가가 제일입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도 넉넉해서 다

가을 과일 중 가장 맛있고 영양이 있는 과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과일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리스의 희극작가 메난드로스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쾌한 과실은 감사다." 에덴은 감사가 넘쳐나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을은 텅 빈 가슴에 외로움, 허무함, 정욕만 남게 됩니다.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시를 지어봅시다. 예수 안에서 심령천국, 가을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2) bible66@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이완기 고혈압에 대하여

혈압을 말할 때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라는 용어를 쓴다.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엄밀히 말하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압기에 측정되는 혈압을 말하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좌심실)이 이완될 때의 혈압을 의미한다. 수축기 혈압

은 혈액이 심장에서 뿜어내갈 때의 혈압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고 이완기 때는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기간이므로 수축기보다는 혈압이 낮다. 혈압이 140/80mmHg라고 할때 수축기 혈압은 140mmHg, 이완기 혈압은 80mmHg이 된

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40대 후반의 정모씨는 3년 전부터 가끔씩 혈압을 잴 때마다 이완기 혈압이 높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왔다. 가족 중에는 부친이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았고 70대 초반에는 뇌졸중을 앓은 가족력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여졌다. 정씨를 검진한 결과 혈압이 138/95mmHG, 맥박이 분당 90회, 체중이 190파운드였고 키는 5피트 7인치였다. 체질량 지수(BMI)를 계산해보니 29.8이었다. 다른 이학적 검사는 별 이상이 없었고 혈액검사상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들었다. 정씨는 이완기 고혈압으로 진단받

고 현재로서는 현재 별다른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조절을 하고 혈압조절을 위해서는 저염식을 하도록 했다. 정상 혈압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하, 이완기 혈압은 90mmHg 이하를 말한다. 고혈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축기 고혈압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약물치료를 했을 때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정립되어 있다. 하지만 정상 수축기 혈압을 가지면서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우를 크리닉에서 종종 본다.

그러면 이러한 이완기 고혈압에 대해서 언제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할까? 이완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내로 정상범위면서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이완기 고혈압은 주로 젊은 남성에서, 특히 40세이하의 과체중 내지 비만인 경우에 많고 실제로 수축기 고혈압보다 훨씬 흔하다. 통계를 보면 이완기 고혈압의 60%는 40세이하에서 발생하고 60세이상에서는 드물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완기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 55%에서 7년 내에 수축기 고혈압을 동반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완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인 경우는 혈압을 떨어뜨리

는 것이 심혈관 질환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그 수치가 낮아질수록 예방효과가 감소하다가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하일 경우는 심혈관 질환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이완기 고혈압을 약물치료는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에 약물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90-100mmHg일 경우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조절하고 지속적인 혈압관리를 하도록 한다. 또 이완기 고혈압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신장질환과 같은 말초장기의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문의:213-383-9388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추천도서

Grid of book covers with titles and authors: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어쩌다 거룩하게', '일상의 유혹',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대를 읽다',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